

# 劉宋 왕실의 瀆亂과 鮑照의 <採桑>시

宋 永 程\*

<目次>

I. 緒言	2. 秋胡의 故事
II. 劉宋 왕실의 瀆亂	IV. 鮑照의 <採桑>시 분석
1. 孝武帝와 殷姬	1. 작품 번역 및 분석
2. 前廢帝와 新蔡公主	2. 핵심 典故 분석
III. <採桑>시의 원류	V. 結語
1. <陌上桑> 古辭	

## I. 緒言

曹植, 謝靈運, 鮑照 등 많은 육조 시인의 시집에 주를 단 淸 말 民國 초의 학자 黃節은 1923년에 포조 시에 대한 주석인 《鮑參軍詩補注》를 간행하면서, 그 서문에서 포조 시의 ‘難讀’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辛酉年(1921) 12월 나는 謝靈運 시의 주석 작업이 끝나자, 포조 시의 난독성이 사령운보다 더 심한 것을 생각하고 이어서 주를 달기로 하였다. …… 포조 시를 주 다는 데는 대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 대개 唐 이래로 포조 시를 읽는 사람이 적고 작품이 많이 일실되어, 문자의 오류가 있어도 完本을 얻을 수가 없으니, 여러 판본을 교감하더라도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으며, 하물며 <吳歌>의 “觀見水流還”처럼 모든 판본이 다 틀린 것은 교감할 근거도 없다. 이것이 주 달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이

\*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문학과 교수

다. 포조는 일생 때를 만나지 못하여,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말이 많고 공명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적은 데다가 시기심 많은 군주(孝武帝)를 만났기 때문에, 用典이 지나치게 隱微하다. 게다가 스스로 자신만의 시어를 만들기를 잘하고 章法이 신기하고 변화가 많아 <離騷>와 유사한 점이 있다. <採桑>시에서 ‘綿歎’하는 자가 누구이며 ‘揚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시에서 다룬 사실이 隱微하고 시에 표현된 내용이 晦澁한데, 이와 같은 것 또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를 다는 사람은 다만 典語와 故實만을 찾고 시인의 마음을 파고들어 없어, 숨은 뜻이 드러나지 않으니 대체로 아름다운 시어만 다를 뿐이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이유이다.<sup>1)</sup>

즉 포조(414?~466) 시가 읽기 어렵고 주 달기 어려운 이유는 판본마다 다른 표현이 많지만 完本이 없다는 점이 첫째이고, 시인이 用典을 隱微하게 처리하여 구체적 사실을 찾아내기 어렵고 독특한 造語와 변화 많은 章法으로 인하여 詩意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둘째라는 것이다. 실제로 포조의 시 중에는 번역은 되지만 주제를 찾아내기 어려운 시가 많고 심지어는 번역조차 어려운 작품도 더러 있다. 그가 문벌귀족 시대에 庶族과 다른 없는 몰락 士族 출신으로서, 세상사에 대해 많은 불평과 불만을 지니면서도 마음 속에 고민과 울분으로 쌓아들 뿐 겉으로 토로하기 어려웠던 것<sup>2)</sup>도 그의 시가 난해한 중요한 이유이다.

1) 黃節, <鮑參軍詩注序>: “辛酉十二月, 余注謝康樂詩既畢, 念鮑參軍詩難讀, 視康樂過之, 繼將作注. …… 鮑詩之注, 概有二難. …… 蓋自唐以來, 讀鮑詩者鮮, 篇什多佚, 文字之譌異, 完本既不可得, 諸本校奪, 何所適從? 況有諸本悉誤者, 如 <吳歌>‘觀見水流還’, 則亦無從校奪. 注者之難, 此其一也. 參軍生不逢辰, 憂危辭多, 功名志薄, 又遇猜主, 故隸事過隱. 而善自造辭, 章法奇變, 有類<楚騷>. <採桑>‘綿歎’者誰? ‘揚歌’何指? …… 事隱意晦, 如是者亦不可悉終. 注者第求典實, 無與詩心, 隱志不彰, 概爲藻語. 此其二也. ……”(錢仲聯 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上海古籍出版社, 1980.11) <卷首> pp.3-4)

2) 포조의 대표적 시인 <擬行路難> 연작시 중 제 6수에서는 “밥상 대하고도 먹을 수 없어, 칼 뽑아 기둥 후려치며 길게 한숨쉴(對案不能食, 拔劍擊柱長歎息)”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제 4수에서는 “마음이 목석이 아닌데 어찌 느낌이 없겠는가? 소리 삼키고 머뭇거리며 감히 말하지 못할 뿐(心悲木石豈無感, 吞聲躑躅不敢言)”이라고 하여, 이러한 심정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 때문에 포조의 시에는 그 주제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것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代出自薊北門行>시의 경우, 크게는 ‘誓死報國’과 ‘諷刺時政’이라는 상반된 견해로 갈리고, 세부적으로는 ‘征戰苦辛’ 토로, ‘邊塞之狀’ 묘사, ‘從軍出塞之作’ 등으로 갈린다.<sup>3)</sup> 본고에서 다루려는 <採桑>시의 경우에는 견해가 더욱 다양한데, 淸의 吳汝綸은 孝武帝(454~464 재위)와 殷姬 또는 前廢帝(465 재위)와 新蔡公主 사이의 더럽고 난잡한(瀆亂) 관계를 풍자한 것이라고 보았지만,<sup>4)</sup> 현대 학자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인다. 자신이 등용되기를 바라는 시라고 보는 이도 있고,<sup>5)</sup> 자유연애를 주장하고 찬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sup>6)</sup> 화창한 봄날 소녀들이 뽕을 따며 즐겁게 노는 정경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7)</sup> 부분적인 측면이나 일부 시어만 보면 이 주장들이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포조의 시는 동시대의 다른 시인과는 달리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한 작품이 많다. 뿐만 아니라 86수라는 적지 않은 악부시를 지은 점도 그의 중요한 한 특징이다. 그런데 악부시의 기본정신은 “哀樂에 감동을 받아 구체적 사실로 말미암아 노래로 불려지는” 현실 반영에 있으며,<sup>8)</sup> 더구나 <採桑>에 대해 黃節은 그 연원을 古辭 <陌上桑>으로 보면서 포조의 이 작품이 ‘古意’를 가장 잘 살린 것이라고 하였으니,<sup>9)</sup> 이는 이 시가 당시의 구체

- 3) 줄고, <鮑照의 <代出自薊北門行>시에 관하여>(영남중국어문학회, 《中國語文學》 제28집, pp.121-147) 참조.
- 4) 吳汝綸, 《漢魏六朝百三家集選·鮑參軍集選》: “孝武宮闈瀆亂, 傾惑殷姬, 詩殆爲此而作. 不然, 則謂廢帝之以新蔡公主爲後宮也.”(黃進德 主編, 《中華大典(文學典)·魏晉南北朝文學分典(二)》(南京: 鳳凰出版社, 2007.4), p.391에서 재인용)
- 5) 林嵩山, 《鮑照樂府彙解》(臺北: 眞義出版社, 1985.1)
- 6) 喬櫻, <採桑>(盧昆·孫安邦 주편, 《漢魏晉南北朝隋詩鑑賞詞典》(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9.3), pp.760-762).
- 7) 鍾優民, 《社會詩人鮑照》(臺北: 文津出版社, 1994.2), p.129.
- 8) 《漢書》(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1975.11) 권30 <藝文志·詩賦略序>, p. 1756: “自孝武立樂府而采歌謠, 於是有代趙之謳, 秦楚之風, 皆感於哀樂, 緣事而發, 亦可以觀風俗, 知薄厚云.”

적 사실에 근거하여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한 것은 吳汝綸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송 왕실의 난잡한 남녀관계와 <採桑>시의 모의 대상인 古辭의 주제를 살피면서 오여륜의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劉宋 왕실의 瀆亂

劉宋은 武帝(420~422 재위)의 건국 시기와 文帝(424~453 재위)의 전반기 15년을 제외하면 내우외환이 점철된 혼란의 왕조였다. 특히 왕실 내부의 권력투쟁의 참상은 매우 혹독하여, 沈起燁는 《細說兩晉南北朝》의 劉宋篇 마지막 절의 제목을 ‘골육상잔의 유송 왕실(自相殘殺的劉宋帝室)’이라고 붙일 정도였다.<sup>10)</sup> 여기에다 황제는 물론 황실 부녀자들의 醜行도 끊이지 않았다. 왕실을 둘러싼 이러한 혼란상에 대하여 沈約은 《宋書·二凶傳論》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심하도다, 유송 왕실의 집안 싸움은. …… 싸움이 부모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고, 추악한 행위가 부녀자들 사이에 유행하여, 사랑하고 공경하는 도리가 일시에 갑자기 없어져버렸다. 백성들이 오랑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만도 다행이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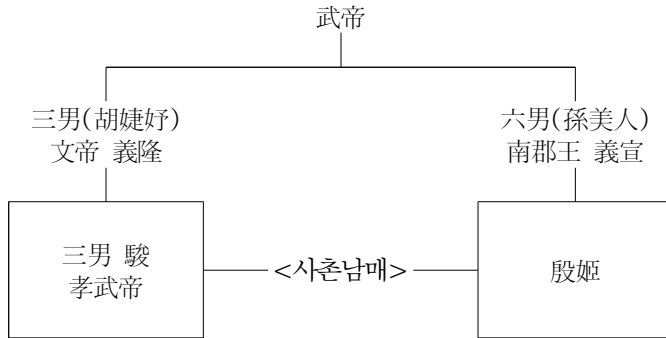
9) 錢仲聯, 앞의 책, pp.137-138: “(補注)此擬古辭<陌上桑>也. 《宋書·樂志》, 大曲十五曲, 三曰<羅敷行>. 一曰<日出東南隅行>, 一曰<艷歌羅敷行>, 亦曰<日出行>. <採桑曲>擬<陌上桑>. 明遠此篇, 最得古意.”

10) 沈起燁, 《細說兩晉南北朝》(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4.2)

11) 《宋書》(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1976.5) 권99, <二凶傳論> p.2440: “甚矣哉, 宋氏之家難也. …… 難興天屬, 穢流牀第, 愛敬之道, 頓減一時, 生民得無左衽, 亦爲幸矣.”

1. 孝武帝와 殷姬

殷姬는 太祖 武帝의 6남(孫美人 소생) 南郡王 劉義宣의 딸이고, 孝武帝는 무제의 3남(胡婕妤 소생)인 文帝 劉義隆의 3남이다. 무제와 남군왕은 同父異腹 형제이고, 효무제와 은희는 사촌 남매이다.



효무제는 숙부인 남군왕 유의선의 딸들을 좋아하여 사통하였는데, 남군왕이 이를 알고 반역을 모의하였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誅殺되었다.<sup>12)</sup> 그 후 효무제는 그 중 殷姬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남의 눈을 의식해 성을 殷씨로 바꾸었다. 이에 관한 기록은 《宋書》의 여러 곳에 散見되는데, 예를 들면 권80 <孝武十四王傳> 중 <始平孝敬王子鸞>에 자란의 생모 殷貴妃의 총애가 후궁 중 으뜸임을 말한 대목이 있고, 권45 <劉懷慎傳>, 권53 <張茂度傳>, 권59 <江智淵傳>, 권97 <夷蠻傳> 등에 殷姬 사후 효무제의 애통해함과 厚葬 및 추도 상황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권41 <后妃傳論>에서는 유송 황제들의 황음에 대한 총괄적 평론을 하면서 효무제와 은희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12) 沈起煒, 앞의 책, p.298.

음식과 남녀의 문제는 사람의 커다란 욕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민정을 좇아 그 법도를 만들었다. …… 태조 文帝가 潘淑妃에게 미혹되어 圖謀가 부인에 미치고, 大明(효무제)이 殷姬에게 빠져 후궁의 몸으로 황후에 필적함에 미처서는, 많은 환난이 피붙이에게서 일어나고 살육이 형제간에서 행해지도록 하고 또 하물며 이에 들도록 함에라. 이로써 말한다면, 夏殷周 삼대와 兩漢이 寵姬 때문에 망한 것이 오히려 불행한 것이 아니었다.<sup>13)</sup>

그러나 은희의 출신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唐의 李延壽가 지은 《南史》에서는 《宋書》에 산견되던 자료를 한 데 모아 <后妃傳上>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은희가 유익선의 딸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后妃傳下>의 <論>의 내용은 《宋書》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后妃傳上>의 내용을 중심으로 효무제와 은희 사이에 엮인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殷淑儀는 南郡王 劉義宣의 딸이다. 타고난 미모가 탁월하여 효무제가 좋아하였고, 의선은 이 일을 알고 반란을 모의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효무제는 비밀리에 그녀를 궁으로 맞아들였으며, 그녀에 대한 총애는 후궁 중 으뜸이었다. 남의 눈을 의식하여 假姓으로 殷氏를 하사하였는데, 이 사실을 누설하는 자는 대부분 죽임을 당하여 당시에 아무도 그 출신을 알지 못하였다. 그녀의 사후 그리움을 떨칠 수 없게 된 효무제는 서랍처럼 만들어 수시로 열 수 있게 만든 관인 通替棺을 만들게 하여, 보고 싶을 때면 수시로 열고 시신을 보았다. 이렇게 여러 날을 지냈지만 시신의 形色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貴妃라는 직함을 추증하고 宣이라는 시호를 내려 ‘殷貴妃’ ‘宣貴妃’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장례 때에는 천자나 황후의 장례식에 사용하는 의장인 輜輳車, 虎賁, 班劍, 鑾輅九旒, 黃屋左纛, 前·

13) 《宋書》 권41 <后妃傳論>, p.1298: “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 故聖人順民情而爲之度. …… 及太祖之傾惑潘姬, 謀及婦人; 大明之淪溺殷姬, 并后匹嫡, 至使多難起於肌膚, 并命行於同產, 又況進於此者乎. 以斯言之, 三代二漢之亡於淫嬖, 非不幸也.”

後部羽葆, 鼓吹 등을 쓰도록 할 정도로 효무제의 배려가 극진하였다. 효무제는 친히 南掖門에까지 나와 운구를 지켜보다가 상여가 지나가자 슬픔을 가누지 못하였으며 이를 본 좌우의 신하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였다. 그 후 효무제는 슬픔이 너무 크고 그리움을 떨칠 수 없어 냇을 놓고 政事도 자주 폐하였으며, 잠자리에 들 때마다 먼저 靈床에 술을 올리고 그것을 마신 후 통곡을 하며 그칠 줄을 몰랐다고 한다. 또 담당 관리에게 《春秋》의 기록을 예로 들면서, 魯나라의 仲子는 惠公의 元嫡이 아니었지만 別宮을 지어주었는데, 귀비는 신분이 매우 높으니 새 것을 지어주어야 마땅하다고 하고는 都下에 別廟를 세우게 하였다. 그녀를 잊지 못하던 효무제는 귀신을 볼 수 있다는 무당이 있다고 하자, 그를 불러 은숙의 혼령을 불러오도록 하였다. 휘장 속에서 생전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효무제가 말을 걸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손을 잡으려고 하자 홀연히 사라져, 효무제는 더욱 한이 복받쳐 목이 메었다. 그래서 漢 武帝의 <李夫人賦>를 본떠 그리움을 토로하였다. 謝莊이 지어 바친 <哀策文>을 읽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都下에서 그 글을 傳寫하느라 紙墨이 귀해질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이 <傳>의 말미에는 殷貴妃가 본래 殷琰의 家人인데 劉義宣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의선이 패한 후에 입궁하였다고 하는 다른 견해를 부기하기도 하였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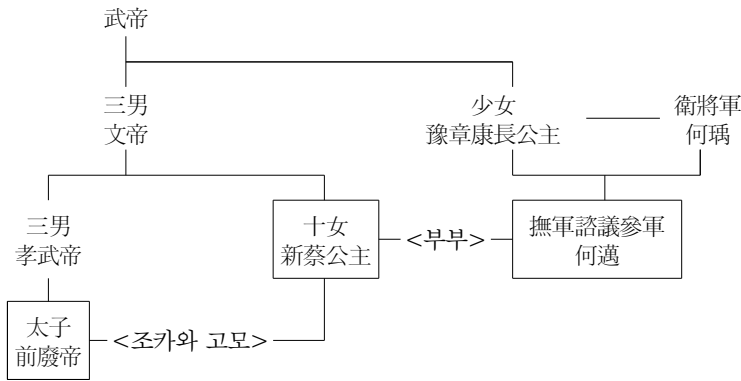
효무제는 은숙의 사후에 그녀를 위해 新安寺라는 절을 창건하기도 하

14) 《南史》(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1977.8) 권11 <后妃上> pp.323-324: “殷淑儀, 南郡王義宣女也. 麗色巧笑. 義宣敗後, 帝密取之, 寵冠後宮. 假姓殷氏, 左右宣泄者多死, 故當時莫知所出. 及薨, 帝常思見之, 遂爲通替棺, 欲見輒引替睹屍, 如此積日, 形色不異. 追贈貴妃, 諡曰宣. 及葬, 給輜輶車·虎賁·班劍. 鑾輅九旒·黃屋左纛·前後部羽葆·鼓吹, 上自於南掖門臨, 過喪車, 悲不自勝, 左右莫不掩泣. 上痛愛不已, 精神罔罔, 頗廢政事. 每寢, 先於靈床酌奠酒飲之, 既而慟哭不能自反. 又諷司奏曰: ‘據春秋, 仲子非魯惠公元嫡, 常得考別宮. 今貴妃蓋天秩之崇班, 理應創新.’ 乃立別廟於都下. 時有巫者能見鬼, 說帝言貴妃可致. 帝大喜, 令召之. 有少頃, 果於帷中見形如平生. 帝欲與之言, 默然不對. 將執手, 奄然便歇, 帝尤哽恨, 於是擬李夫人賦以寄意焉. 謝莊作哀策文奏之, 帝臥覽讀, 起坐流涕曰: ‘不謂當今復有此才.’ 都下傳寫, 紙墨爲之貴. 或云, 貴妃是殷琰家人入義宣家, 義宣敗入宮云.”

였다. 그녀의 두 아들 중 맏이인 子鸞이 新安王에 봉해졌기 때문에 절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다. 前廢帝가 즉위하여 子鸞을 죽이고 이 절도 毀廢하였는데, 明帝가 즉위한 후 다시 복원되었다고 한다.<sup>15)</sup>

2. 前廢帝와 新蔡公主

前廢帝와 그의 고모 新蔡公主의 일화는 부도덕하기가 효무제와 은희와의 이야기보다 더 심하다. 신채공주는 문제의 열째딸로 이름은 英媚이며 豫章王 劉子尚의 撫軍諮議參軍을 지낸 何邁에게 시집을 갔다. 하매의 모친은 문제의 父王인 武帝의 딸인 豫章康長公主 欣男이다. 즉 하매의 모친과 아내는 고모와 조카 사이이면서 동시에 고부 사이이니, 이 두 가문은 이미 겹사돈인 인척이 되었다.



前廢帝는 자신의 고모인 신채공주가 친정에 들린 틈을 타 그녀를 감금하고는 공주가 죽었다고 헛소문을 내고 대신 궁녀를 죽여 신채공주의 시신으로 꾸며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녀의 성을 謝氏로 바꾸어 宮人

15) 《宋書》 권97 <夷蠻傳>, pp.2387-2388.



謝貴嬪이라는 직책을 주어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리고는 평소에 武勇을 좋아하고 才力之士를 모아 즐기기를 좋아하던 하매가 무슨 일을 저지르까 매우 꺼려했다. 하매도 禍가 미칠까 염려하여 전폐제가 출행할 때 반란을 일으키고 始興王 劉子勛을 옹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전폐제 宿衛兵의 기습을 받고 살해되었으며 유자훈도 賜死되었다.<sup>16)</sup>

나중에 明帝가 전폐제를 폐위시키고 즉위한 후 太皇太后가 승을 내렸는데, 이 글에는 “신채공주가 강요에 의해 남편의 가족과 헤어져 깊은 궁중에 유폐되고 죽었다는 헛소문을 내었다.”<sup>17)</sup>는 말이 있다. 이것은 史書의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상의 효무제와 전폐제의 소행은 윤리 면에서 지탄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들은 황제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각각 사촌 여동생과 이미 결혼한 고모를 강압하여 탈취한 것이다.

### Ⅲ. <採桑>시의 원류

郭茂倩의 《樂府詩集》에 의하면 <採桑>은 <陌上桑>에서 나온 것이다.<sup>18)</sup> 黃節은 포조의 시가 고사 <陌上桑>을 본뜬 것이라고 하면서도 《宋書·樂志》를 인용하면서도 大曲 15곡 중 세 번째인 <羅敷>를 언급하면서 이 곡은 <日出東南隅行>, <艷歌羅敷行>, <日出行>으로도 불린다고 하였다. 사실 《宋書·樂志》에는 <相和歌>에 <陌上桑>이라는 제목의 시 3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文帝의 ‘棄故鄉’, 《楚詞》의 ‘今有人’, 武帝의 ‘駕虹蜺’이다.<sup>19)</sup>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는 ‘採桑’과 전혀 무관한 작품이다. ‘採

16) 《宋書》 권7 <前廢帝紀> p.145, 권41 <后妃傳> pp.1293-1294, 권80 <孝武十四王傳> p.2060 및 《南史》 권2 <宋本紀中> pp.69-70 참조.

17) 《宋書》 권7 <前廢帝紀> p.146: “新蔡公主逼離夫族, 幽置深宮, 詭云薨殞.”

18) 郭茂倩, 《樂府詩集》(『四部備要』本 臺2版; 臺北: 中華書局, 1970.6) 권28 <相和歌辭·相和曲·陌上桑>: “又有《採桑》, 亦出於此.”

19) 《宋書》 권21 <樂志三> pp.607-608.

桑'과 관련이 있는 작품은 오히려 황절의 지적처럼 <大曲> 중 <艷歌羅敷行>인데,<sup>20)</sup> 이 작품은 郭茂倩의 《樂府詩集》에는 제목이 <陌上桑>으로 되어 있고, 徐陵의 《玉臺新詠》에는 <日出東南隅行>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현재 대부분의 選集에는 《樂府詩集》을 따라 '陌上桑'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鄭樵의 《通志》에 의하면 <陌上桑>은 본래 두 수가 있는데, 한 수는 일명 <秋胡行>으로 秋胡의 고사를 읊었으며, 다른 한 수는 일명 <艷歌羅敷行>으로 羅敷의 고사를 읊었다.<sup>21)</sup> 현재 <艷歌羅敷行>은 위에서 언급한 <陌上桑>이고, <秋胡行>의 古辭는 실전되고 故事만 《列女傳》에 전해진다. 이 장에서는 전자의 古辭와 후자의 故事를 절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陌上桑> 古辭

1. 해가 동남쪽에서 떠올라	日出東南隅
2. 우리 진씨네 누각을 비추네.	照我秦氏樓
3. 진씨에게 고운 딸 있으니	秦氏有好女
4. 스스로 나부라 이름 부르네.	自名爲羅敷
5. 나부는 누에치기 좋아하여	羅敷喜蠶桑
6. 성 남쪽에서 뽕을 따다네.	採桑城南隅
7. 푸른 명주로 바구니 끈 만들고	青絲爲籠係
8. 계수나무 가지로 바구니 손잡이 만들었네.	桂枝爲籠鉤
9. 머리에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쪽을 하고	頭上倭墮髻
10. 귀에는 명월주 귀걸이를 하였네.	耳中明月珠

20) 같은 책, 같은 곳, p.617.

21) 鄭樵 《通志》(『文淵閣四庫全書』本; 臺北: 商務印書館 영인) 권49 <樂略·相和歌> pp.9-10: “<陌上桑>亦曰<艷歌行>, 亦曰<日出東南隅行>, 亦曰<日出行>, 亦曰<採桑曲>, 曹魏改曰<望雲曲>.(<注>: <陌上桑>有二, 此則爲羅敷也. …… 別有<秋胡行>, 其事與此不同, 以其亦名<陌上桑>.) …… <秋胡行>亦曰<陌上桑>, 亦曰<採桑>, 亦曰<在昔>.”

11. 담황색 비단으로 치마를 하고	緗綺爲下裙
12. 자주색 비단으로 저고리 하였네.	紫綺爲上襦
13. 길가는 이는 나부를 보고	行者見羅敷
14. 짐 벗고 수염을 어루만지고,	下擔持髭鬚
15. 소년은 나부를 보고	少年見羅敷
16. 모자 벗고 두건을 드러낸다네.	脫帽著幘頭
17. 밭가는 이 쟁기를 잊어버리고	耕者忘其犁
18. 김매는 이 호미를 잊어버리네.	鋤者忘其鋤
19. 집에 와선 서로 화내고 다투니	來歸相怒怨
20. 오로지 나부를 보았기 때문.	但坐觀羅敷

이상은 이 시의 제 1解로 여주인공 나부의 미모를 집중적으로 묘사하였다. 1-4에서는 나부의 출신을 소개하고, 5-8에서는 나부의 採桑 차림새를 그리고, 9-12에서는 나부의 맴시와 차림새를 묘사하였으며, 13-20에서는 ‘行者’, ‘少年’, ‘耕者’, ‘鋤者’가 나부의 미모에 넋을 잃은 상황을 그림으로써 나부의 미모를 측면에서 부각하였다.

1. 태수가 남쪽에서 들어오는데	使君從南來
2. 다섯 필 말 멈추어서 서성거리네.	五馬立踟躕
3. 태수가 아전을 보내어 와서	使君遣吏往
4. 누구네 미녀인지 물어본다네.	問是誰家姝
5. “진씨에게 고운 딸 있어	秦氏有好女
6. 스스로 나부라 이름 부르지요.”	自名爲羅敷
7. “나부는 나이가 몇 살인지요?”	羅敷年幾何
8. “스물은 아직 못 되었고요	二十尙不足
9. 열다섯은 조금 넘는답니다.”	十五頗有餘
10. “태수께서 나부에게 물으시는데	使君謝羅敷
11. 수레 타고 함께 갈 수 있는지요?”	寧可共載不
12. 나부가 앞에 나서 답을 하기를	羅敷前置辭
13. “태수는 어찌 그리 어리석나요,	使君一何愚
14. 태수는 본디부터 아내가 있고	使君自有婦

15. 나부는 본디부터 남편 있다오.”

羅敷自有夫

이상은 제 2해로 태수가 부하 관리를 통해 나부를 유혹하는 내용이며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 1-4는 태수가 부하 관리를 보내어 나부에게 말을 거는 장면의 묘사이고, 5-6은 나부의 대답, 7은 관리의 질문, 8-9는 나부의 대답으로 성명과 나이에 대한 문답이다. 10-12는 태수를 대신한 관리의 본격적 유혹이고, 13-15는 나부의 단호한 거절이다.

- |                        |       |
|------------------------|-------|
| 1. “동방에 천여 기 달리는 중에    | 東方千餘騎 |
| 2. 서방님이 제일 앞에 달린답니다.   | 夫婿居上頭 |
| 3. 무엇으로 서방님 알아보느냐      | 何用識夫婿 |
| 4. 백마가 검정 말을 따르게 하고,   | 白馬從驪駒 |
| 5. 푸른 명주 말꼬리에 매어 있으며   | 青絲繫馬尾 |
| 6. 황금 굴레 말머리에 둘렀답니다.   | 黃金絡馬頭 |
| 7. 허리에는 녹로검을 차고 있는데    | 腰中鹿盧劍 |
| 8. 그 값이 천만 냥은 나간답니다.   | 可直千萬餘 |
| 9. 열다섯에 태수부의 하급관리로     | 十五府小史 |
| 10. 스무 살에 조정의 대부가 되고,  | 二十朝大夫 |
| 11. 서른 살에 황제의 시종이 되어   | 三十侍中郎 |
| 12. 마흔 살에 한 성의 장관 됐지요. | 四十專城居 |
| 13. 생김새는 맑고 흰 고운 얼굴에   | 爲人潔白皙 |
| 14. 듬성듬성 수염도 제법 있지요.   | 鬣鬣頗有鬚 |
| 15. 성큼성큼 관공서 걸음걸이요.    | 盈盈公府步 |
| 16. 느릿느릿 태수부 걸음이지요.    | 冉冉府中趨 |
| 17. 좌중의 수천 명 사람들마다     | 坐中數千人 |
| 18. 서방님이 출중하다 말을 하지요.” | 皆言夫婿殊 |

이상은 제 3해로 제 2해를 이은 나부의 거절의 말로서, 자신의 남편을 과장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상대를 제압하고 있다. 1-8은 남편 행차의 성대함과 남편의 화려한 치장과 늠름한 자세를 그리고, 9-12는 남편의 빠른 승

진을, 13-16은 남편의 귀공자다운 모습과 당당한 걸음걸이를 그렸으며, 17,18에서는 제3자의 평가로 남편의 출중함을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崔豹의 《古今注》에 의하면, 羅敷는 邯鄲 사람 秦씨의 딸로, 邑人 千乘인 王仁에게 시집을 갔고, 王仁은 나중에 趙王의 家令이 되었다. 羅敷가 길가에 나와 빵을 따는데, 趙王이 누대에 올라 보고는 그녀를 좋아하여 술을 준비해두고 그녀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나부는 <陌上桑> 노래를 지어 조왕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sup>22)</sup> 그렇다면 나부의 남편도 천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제후의 가령이 되었지만, 나부는 오히려 남편의 상전인 제후의 무리하고 부적절한 유혹을 받은 것이 된다.

## 2. 秋胡의 故事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秋胡行>의 古辭는 실전되었지만, 추호의 故事는 《列女傳》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潔婦는 魯의 秋胡子의 妻이다. 추호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지 닷새 만에 떠나 陳에서 벼슬을 하다가 5년 만에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길가에서 한 부인이 빵을 따고 있는 것을 보았다. 秋胡子는 기뻐하며, 수레에서 내려 말하였다. “햇볕에 나와 빵을 따면 내가 길을 가는데 ○○하니 부디 빵나무 그늘에서 ○○하여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바랍니다.” 부인은 쉬지 않고 계속 빵을 땀는데 추호자는 “힘들여 밭을 가는 것보다는 풍년을 만나는 것이 좋고, 힘들여 빵을 따는 것보다는 國卿을 만나는 것이 낫지요. 나에게 황금이 있는데 부인에게 드리고 싶소.”라고 하였다. 婦人이 말하였다. “아! 빵을 따고 힘써 일하여 베를 짜서 衣食을 대어 양친을 봉

22) 崔豹 《古今注》: “《陌上桑》者, 出秦氏女子. 秦氏, 邯鄲人有女名羅敷, 爲邑人千乘王仁妻. 王仁後爲趙王家令. 羅敷出採桑於陌上, 趙王登臺見而悅之, 因置酒欲奪焉. 羅敷巧彈箏, 乃作《陌上桑》之歌以自明, 趙王乃止.” 《樂府解題》의 견해는 이와 달리 빵 따던 여인 나부가 태수의 요구에 자신의 남편이 侍中郎이라고 뽐내면서 거절한 것이라고 보았다.(《樂府解題》: “古辭言羅敷採桑, 爲使君所邀, 盛誇其夫爲侍中郎以拒之.”) 이상 곽무천, 권28 <陌上桑> 해제 참조.

양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금을 원치 않습니다. 원컨대 그대는 탄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란하고 방탕한 뜻도 없습니다. 그대의 돈과 황금을 거두어들이기 바랍니다.” 추호자는 마침내 떠났다. 집에 돌아와서 황금을 모친에게 드렸다. 모친이 사람을 시켜 며느리를 불러들였다. 며느리가 왔는데 아까 뺨 따던 여인이었다. 秋胡子는 보고서 부끄러워졌다. 며느리가 말하였다. “그대는 머리 묶고 修身하여 양친을 하직하고 벼슬길에 나가, 5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으면 마땅히 친척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길가의 婦人을 좋아하여 그대 행장을 풀어 황금을 주려고 하였으니, 이는 모친을 잊은 것입니다. 모친을 잊은 것은 불효입니다. 호색하고 음탕하였으니 이는 행동을 더럽힌 것입니다. 행동을 더럽힌 것은 불의입니다. 무릇 부모를 모시는 데 불효하면 임금을 섬기는 데 불충하게 되고, 집안 일을 처리함에 불의하면 官事를 처리함에 도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효와 의가 모두 없다면 아무런 성취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차마 볼 수 없으니 그대는 새 장가 드십시오..” 마침내 떠나서 강물에 빠져 죽었다.<sup>23)</sup>

이 이야기에서 추호는 뺨 따는 여인 潔婦가 신혼 이별한 자신의 아내인 지도 모르고 그녀를 유혹한다. 그가 유혹한 수단은 황금 즉 재력이다. 이것은 <맥상상>에서 태수가 자신의 신분 즉 권력을 이용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다가가는 두 가지 힘이다.

그런데 梁 王筠(481~549)은 <陌上桑>시에서 추호자와 나부의 이야기를 뒤섞어 추호가 나부를 유혹한 것으로 노래하고 있다.

23) 《列女傳》 권5 「魯秋潔婦」: “潔婦者, 魯秋胡子妻也. 既納之五日, 去而宦於陳, 五年乃歸. 未至家, 見路旁婦人採桑, 秋胡子悅之, 下車謂曰: ‘若曝採桑, 吾行道○○, 願託桑蔭下○○, 下齋休焉.’ 婦人採桑不輟, 秋胡子謂曰: ‘力田不如逢豐年, 力桑不如見國卿. 吾有金, 願以與夫人.’ 婦人曰: ‘嘻! 夫採桑力作, 紡績織紵, 以供衣食, 奉二親, 養夫子. 吾不願金, 所願卿無有外意, 妾亦無淫泆之志, 收子之齋與筭金.’ 秋胡子遂去, 至家, 奉金遺母, 使人喚婦至, 乃嚮採桑者也, 秋胡子慚. 婦曰: ‘子束髮脩身, 辭親往仕, 五年乃還, 當所悅馳驟, 揚塵疾至. 今也乃悅路傍婦人, 下子之裝, 以金子之, 是忘母也. 忘母不孝, 好色淫泆, 是污行也, 污行不義. 夫事親不孝, 則事君不忠. 處家不義, 則治官不理. 孝義並亡, 必不遂矣. 妾不忍見, 子改娶矣, 妾亦不嫁.’ 遂去而東走, 投河而死.”

- |                        |       |
|------------------------|-------|
| 1. 사람들은 말하네 길가의 뽕은     | 人傳陌上桑 |
| 2. 날 새기 전 햇빛 이미 머금었다고. | 未曉已含光 |
| 3. 겹겹이 그늘지고 빛도 말하여     | 重重相蔭映 |
| 4. 보드랍게 스스로 향기도 좋네.    | 軟軟自芬芳 |
| 5. 추호가 다가와서 말을 멈출 때    | 秋胡始停馬 |
| 6. 나부는 광주리도 못 채웠다네.    | 羅敷未滿筐 |
| 7. 봄누에 아침부터 엮드렸는데      | 春蠶朝已伏 |
| 8. 어찌 오래도록 방황하겠소.      | 安得久彷徨 |

이것은 위진남북조 시기에 <맥상상>과 추호 이야기가 모두 권력과 금력을 가진 남성이 뽕 따는 여성을 유혹한다는 유사한 이야기 구조로 인하여 서로 뒤섞여 전해졌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맥상상>과 추호 고시는 모두 권력이나 금력을 지닌 남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여성을 유혹하는 내용이다. 또 그 유혹의 대상은 부하 직원의 아내이거나 자신의 아내로 매우 부도덕한 일이며 이는 앞 장에서 살펴 본 유송 제왕들의 근친 상간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 IV. 鮑照의 <採桑>시 분석

포조의 <採桑>시는 모두 26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작품의 번역을 제시하고 단락을 나누어 내용을 개괄한 후, 시의 전개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전고를 고찰함으로써 오여륜의 해석의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 1. 작품 번역 및 분석

- |                       |       |
|-----------------------|-------|
| 1. 매실 지기 시작하는 춘삼월이면   | 季春梅始落 |
| 2. 여자의 일 누에치기 시작이 된다. | 女工事蠶作 |
| 3. 기수의 물굽이서 뽕잎을 따고    | 採桑淇洧間 |
| 4. 상궁의 누각에서 어울려 논다.   | 還戲上宮閣 |

- |                           |       |
|---------------------------|-------|
| 5. 올 부들은 이때에 그늘을 맺고       | 早蒲時結陰 |
| 6. 늦 대는 껍질 벗기 막 시작한다.     | 晚篁初解籜 |
| 7. 자욱하게 안개는 규방에 차고        | 藹藹霧滿閨 |
| 8. 따뜻하게 햇빛은 휘장 넘친다.       | 融融景盈幕 |
| 9. 젓먹이 어린 제비 풀벌레 쫓고       | 乳燕逐草蟲 |
| 10. 벌집 속 어린 벌은 꽃술 चु는다.   | 巢蜂拾花萼 |
| 11. 이 시절 따뜻하고 아름다운데       | 是節最暄妍 |
| 12. 좋은 옷도 새롭고 환히 빛난다.     | 佳服又新燦 |
| 13. 긴 한숨에 먼 길을 마주 대하고     | 綿歎對迢塗 |
| 14. 노래하며 콩잎을 어루만진다.       | 揚歌弄場藿 |
| 15. 거문고로 생각을 펼쳐 보이고       | 抽琴試抒思 |
| 16. 꽤옥 바쳐 언약을 과연 이뤘다.     | 薦佩果成託 |
| 17. 그대의 郢에서의 아름다움 받들어     | 承君郢中美 |
| 18. 의를 지켜 마음으로 승낙하였다.     | 服義久心諾 |
| 19. 위나라 기풍은 예로부터 요염하고     | 衛風古愉艷 |
| 20. 정나라 습속은 예로부터 경박하다.    | 鄭俗舊浮薄 |
| 21. 靈神의 바람은 상수 건너는 것 슬퍼하고 | 靈願悲渡湘 |
| 22. 宓妃의 노래는 낙수 건너는 것 웃는다. | 宓賦笑灑洛 |
| 23. 성대한 밝음은 거듭 오기 어려운데    | 盛明難重來 |
| 24. 깊은 뜻 누굴 위해 다하려는고.     | 淵意爲誰涸 |
| 25. 그대여 잠시 현을 고르오소서       | 君其且調絃 |
| 26. 桂酒는 이 몸이 따르리이다.       | 桂酒妾行酌 |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0이 제 1단으로 따스한 늦봄 풍경과 女工인 '採桑'이 시작됨을 노래한 부분이다. 1에는 《詩經·召南·標有梅》의 “매실 떨어져, 그 열매 일곱 개 남았네. 나를 찾는 못 사나이들이여, 좋은 날 받아 오라.”의 의미가 暗用되고 있다. 鄭玄의 箋에 의하면 “매실이 아직 일곱 개가 남아 있는 것은 떨어지지 않아도 쇠락하기 시작함을 비유하는 것으로, 여자가 봄이 무르익을 때인 스무 살에 시집가지 않으면 여름이 되면 쇠락한다는 뜻”이다.<sup>24)</sup> 이는 이 시에 등장하는

24) 《詩經·召南·標有梅》 제1장: “標有梅, 其實七兮. 求我庶士, 迨其吉兮.” <鄭



여성이 결혼 적령기에 도달해 있음을 암시한다. 고대 여성들이 하던 대표적인 일은 옷 짓는 일이고 그것은 누에를 키우는 뽕을 따는 데서 시작된다. 제2구의 ‘女工’은 이를 말한다. 이상 두 구는 결혼 적령기에 이른 여인이 계춘 삼월에 뽕 따러 나갈 준비를 함을 말한다.

3,4에는 《詩經·鄘風·桑中》과 《詩經·衛風·氓》 및 《詩經·衛風·淇奥》가 전고로 활용되어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전고는 <桑中>인데 이것은 다음 절에서 살필 것이다. 《樂府詩集》에는 ‘洧’가 ‘澳’로 되어 있어서 ‘기수 물굽이’의 뜻이 된다. 이것은 《詩經·衛風·淇奥》편의 제목이기도 한데 《詩經》의 ‘奥’는 《禮記·大學》 및 《左傳·昭公二年》의 인용에는 ‘澳’로 되어 있다. 이 두 구가 毛詩에 바탕을 두었다면 ‘洧’자는 《樂府詩集》을 좇아 ‘澳’자로 보아야 할 것 같다.<sup>25)</sup> 5,6은 늦봄의 풍경을 묘사한 대목이다. 7,8은 규방의 모습으로 ‘靄靄’와 ‘融融’ 두 의태어를 통하여 따스하게 무르익은 봄기운을 느낄 수 있다. 9,10은 규방 밖의 벌과 어린 제비가 한가롭게 날고 꽃을 찾는 봄 풍경이다.

11-18은 제 2단으로 뽕 따는 여성의 마음속에 연정이 싹트는 것을 읊은 대목이다. 11,12의 ‘暄妍’은 날씨가 따스하고 풍경이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新爍’은 여성들이 입은 아름다운 옷이 산뜻하고 화사한 모양을 말한다. 13,14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緒言에서 인용한 것처럼 黃節이 “‘綿歎’하는 자가 누구이며 ‘揚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左思의 <魏都賦>에 “아득한 먼 길, 산과 물이 갈마드네.”<sup>26)</sup>라고 하였는데, ‘綿歎’과 ‘迢塗’는 이것을 전고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 ‘場藿’은 《詩經·小雅·白駒》의 “새하얀 흰 망아지, 우리 마당 콩잎 먹네.”를 전고로 취하였는데, 鄭玄은 이 시가 “현인을 만류할 수 없음을 풍자한”

箋>: “梅實尙餘七, 未落喻始衰也. 謂女二十春盛而不嫁, 至夏則衰.”

25) 吳德風, <鮑照生平及其作品校正>(臺灣政治大 中文研究所 碩士論文, 1966) p.48 참조.

26) 《文選·上》(『五臣注』本; 서울: 正文社, 1983. 9) 권6, 左思 <魏都賦> p.164: “綿綿迢途, 驟山驟水.”

것이라고 하였다.<sup>27)</sup> 15,16은 남녀가 정표를 주고받으며 내심을 표하는 것을 읊었다. 17,18은 표면상, 錢振倫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楚의 수도 郢에서 속요인 <下里巴人>을 노래하자 따라 부른 사람이 수천 명이 었지만, 고상한 음악인 <陽春白雪>을 부르니 따라하는 자가 수십 명에 불과 했다는 《新序》의 전고를 취하여 두 남녀의 고상한 사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른 전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 여덟 구가 제 3단이다. 喬櫻은 이 부분은 악부 演唱者의 노래를 통한 마무리로 보는데,<sup>28)</sup> 시의 구성상 수궁이 가는 견해이다. 19,20은 앞에서 전고로 인용된 《시경》의 시들이 대부분 <鄭風>과 <衛風>인데, 이들은 예로부터 ‘亂世之音’의 대명사로 불렸으며,<sup>29)</sup> “鄭衛桑間”(李斯 <諫逐客書>), “鄭衛之聲, 桑間之音”(《呂氏春秋·音初》) 등으로 불리며 음란한 음악으로도 일컬어진다. 《漢書·地理志下》에 의하면 “衛地에 桑間濮上의 외진 곳이 있어 남녀가 자주 밀회를 하여 聲色이 이곳에서 생겨나게 되었던”<sup>30)</sup> 것이다. 21,22는 맥락이 다소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錢振倫은 ‘靈’을 《楚辭·九歌》 중 <湘君>의 “大江을 가로지르며 靈을 드날린다”와 <湘夫人>의 “靈이 구름처럼 온다”의 ‘靈’으로 보았다.<sup>31)</sup> 그렇다면 이는 상수의 남신과 여신이 서로의 失約으로 만나지 못함을 슬퍼한다는 뜻이 된다. 吳兆宜는 ‘宓’을 曹植의 <洛神賦序> “내가 서울에 朝聘을하고 洛川을 건너 돌아왔는데, 고인은 ‘이 물의 신을 宓妃라고 부른다.’”<sup>32)</sup>를 출전으로

27) 《詩經·小雅·白駒》: “皎皎白駒, 食我場藿.” <鄭箋>: “刺不能留賢也.”

28) 喬櫻, <採桑> p.761.

29) 《禮記·樂記》: “鄭衛之音, 亂世之音也.”

30) 《漢書》 권28下 <地理志下> p.1665: “衛地有桑間濮上之阻, 男女亦亟聚會, 聲色生焉.”

31) 《楚辭·九歌·湘君》: “橫大江兮揚靈.” 《楚辭·九歌·湘夫人》: “靈之來兮如雲.”

32) 《文選·上》 권19, 曹植 <洛神賦序> p.453: “余朝京師, 還濟洛川. 古人有言, 斯水之神, 名曰宓妃.”

밝혀, 伏羲의 딸로 洛水에 익사하여 수신이 된 宓妃로 보았다. ‘瀆’은 洛水의 지류이지만 ‘瀆洛’은 문장 구조상 出句의 ‘渡湘’과 어울리지 않는다. 《玉臺新詠》에는 ‘靈’은 ‘虛’로 ‘宓’은 ‘空’으로 되어 있다. 丁福保는 《全宋詩》의 校語에서 “‘虛’는 《樂府詩集》에 ‘靈’으로 되어 있는데 옳지 않으며, ‘空’은 《樂府詩集》에 ‘宓’으로 되어 있는데 옳지 않다. ‘瀆’자는 확실치 않다. 《樂府詩集》에는 ‘景’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옳지 않다. 아마 ‘濟’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라고 하였고,<sup>33)</sup> 吳德風도 이 견해에 동조하여 “‘헛된 바람은 상수 건너는 것 슬피하고, 공연한 노래는 낙수 건너는 것 웃는다(虛願悲渡湘, 空賦笑濟洛).’라고 하면 文義가 통하고 對仗도 정교하다.”라고 하였다.<sup>34)</sup> 마지막 25,26은 <九歌·東皇太一>의 “계주와 초장을 바친다”의 ‘桂酒’를 전고로 취한 것으로, 더욱 공경을 다하여 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sup>35)</sup>

이상의 고찰에서, 이 시가 표면상으로는 늦봄 여인들이 뽕을 따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시작하여, 봄 풍경 속에 비쳐진 그녀들의 閑愁와 懷春의 심리 묘사를 거쳐, 남녀의 화락을 바라는 마무리 단계로 전개되어 있어서, 봄날 이성을 그리는 採桑女의 노래로 읽을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지만 다음 절에서 다룰 주요 전고를 보면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 2. 핵심 典故 분석

<採桑> 시는, 그 원류인 <陌上桑>과 ‘秋胡故事’를 통하여 보면,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노래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더구나 시에 활

33) 丁福保, 《全漢三國晉南北朝詩》(臺北: 藝文印書館, 1975.9), p.843: “‘虛’《樂府詩集》作‘靈’, 誤; ‘空’《樂府詩集》作‘宓’, 誤; ‘瀆’字未詳, 《樂府詩集》作‘景’, 亦誤, 疑爲‘濟’字之訛.”

34) 吳德風, 앞의 논문, p.49 참조.

35) 《楚辭·九歌·東皇太一》“奠桂酒兮椒漿.” <注>: “桂酒, 切桂置酒中也. 椒漿, 以椒置漿中也. 言已供待彌敬”

용된 ‘採桑’과 관련한 주요 전고를 통하여 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 함의가 깊은 핵심적인 전고로는 제 3,4구에 나오는 ‘淇’와 ‘上宮’, 제 15,16구의 ‘抽琴’과 ‘薦佩’ 그리고 제 17구의 ‘鄆中美’이다. 이 중 ‘淇’와 ‘上宮’, ‘鄆中美’는 모두 ‘桑中之喜’ 즉 남녀간의 부적절한 만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抽琴’과 ‘薦佩’에는 남성의 무례한 여성 유혹 또는 희롱의 의미가 담겨있다.

(1) ‘淇’·‘上宮’과 ‘鄆中美’

제 1단의 가장 중요한 전고인 ‘淇’와 ‘上宮’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詩經·鄆風·桑中》의 시어이다. <桑中>의 제 1장은 다음과 같다.

- |                             |            |
|-----------------------------|------------|
| 1,2. 새삼을 캔다네, 매 고을에서.       | 爰采唐矣, 沚之鄉矣 |
| 3,4. 누구를 그리는가, 어여쁜 강씨네 딸이네. | 云誰之思, 美孟姜矣 |
| 5. 나를 상궁에서 기다려              | 期我乎桑中      |
| 6. 나를 상궁으로 맞아들이고            | 要我乎上宮      |
| 7. 나를 기수 가까이 전송하네.          | 送我乎淇之上矣    |

이 중 5-7은 후렴으로 제 2,3장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 포조는 바로 이 후렴 구의 ‘上宮’과 ‘淇之上’을 직접 전고로 인용하였다. <毛詩序>에 의하면 “위 나라 公室이 음란하여 남녀가 서로 몰래 밀회를 하여, 심지어 높은 지위에 있는 세족들이 서로 남의 처첩과 사통하여 은밀하고 외진 곳에서 밀회를 즐겨, 정치가 어그러지고 백성이 유랑을 하여도 그칠 수 없었는데”, <桑中>은 바로 이러한 ‘남녀의 밀회를 풍자한 것’이다.<sup>36)</sup> 그래서 ‘桑中之喜’라고 하면 禮法에 어긋나는 남녀의 결합을 상징하는 성어가 되었다. 《詩經·鄆風·氓》도 “음풍이 크게 성행하여 남녀가 분별 없이 서로 유혹하고 밀회하며 아름다움이 시들면 서로 버리는”<sup>37)</sup> 현실을 풍자한

36) 《詩經·鄆風·桑中》<毛詩序>: “刺奔也. 衛之公室淫亂, 男女相奔, 至于世族在位相竊妻妾, 期於幽遠, 政散民流而不可止.”

37) 《詩經·鄆風·氓》<毛詩序>: “淫風大行, 男女無別, 遂相奔誘, 華落色衰, 復

시인데, 여인이 자신을 유혹하려 온 사내(氓)를 ‘淇水’까지 바라다준다고 하였다. ‘上宮’과 ‘淇’는 《시경》에서 남녀의 밀회 장소이다.

제 2단의 마지막 두 구인 제 17구의 경우 ‘郢’이라는 시어만 보면 앞 절에서 인용한 전고인 《新序》의 내용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고사라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나 이 경우 詩意 전개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반면 《左傳·成公二年》에 나오는 ‘桑中之喜’가 暗用되어 있다고 보면, 楚의 申公 巫臣이 전쟁포로인 夏姬와 밀회를 약속하는 것이 되어 詩意가 제 18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成公 2년의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宣公 12년에 있었던 일이다. 楚 莊王은 陳을 공격한 후 鄭穆公의 딸로 陳 大夫 御叔에게 시집간 夏姬를 첩으로 맞으려 하였는데, 이 때 巫臣은 그것이 ‘淫行’으로 제후를 공격한 명분을 없애는 것이라며 제지하였다. 또 子反(즉 公子側)이 하회를 차지하려고 하자 무신은 그녀를 ‘不祥人’으로 지목하며 제지하였다. 결국 장왕은 하회를 連尹인 襄老의 첩으로 주었다. 그러나 양로는 전사하고 시체도 거두지 못했는데, 양로의 아들 黑要가 하회와 간통을 하였다. 그러자 무신은 사람을 보내 하회에게 친정인 鄭나라로 돌아가 기다리면 나중에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무신은 鄭伯의 허락도 받았다. 이 때 楚 대부 申叔跪가 수도 郢으로 가다가 무신을 만나 “이상하다. 그대는 三軍의 위세도 있으면서 桑中에서의 즐거움도 가지고 있구려. 장차 남의 아내를 훔쳐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여기서 ‘桑中の 즐거움’은 무신이 하회와 私約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sup>38)</sup> 그 후 무신은 실제로 하회를 아내로 맞아 제나라로 갔다. 하회가 전쟁 포로로 잡혀와 무신의 약속을 받은 곳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의 전개 과정을 보면 楚의 수도 郢이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그렇다면 ‘영에서의 아름다움(郢中美)’은 ‘영에서의 아름다운 약속’으로 풀이할 수 있으니, 이 두 구절은 “그대가 영에서 한 아름다운 약속 받들어, 의를 지

相棄背.”

38) 《左傳·成公二年》：“異哉! 夫子有三軍之懼，而又有桑中之喜，宜將竊妻以逃者也。” 楊伯峻 <注>：“此借用‘桑中’一詞，暗指巫臣與夏姬私約。”

켜 마음으로 승낙한 지 오래되었다”로 풀이되어, 詩意가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상 두 전고는 기본적으로 <桑中>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 3,4구는 직접 <桑中>시의 시어를 인용하였고, 제 17구의 ‘郢中’은 이 시에서 유래한 성어 ‘桑中之喜’가 활용된 사건의 공간이고, ‘郢中美’는 남녀의 은밀한 약속을 뜻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남성은 申公이라는 고급 작위에 있었고 여성은 제후의 딸로 대부의 아내였으므로, 신분 상 劉宋 帝室의 ‘瀆亂’과 관련짓기에 무리가 없다.

## (2) ‘抽琴’과 ‘薦佩’

제 15,16구의 ‘抽琴’과 ‘薦佩’의 전고에는 남성이 무례하게 여성에게 ‘말’을 걸다가 거절을 당하거나 억지로 목적을 달성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 15구에는 <<詩經·周南·漢廣>>의 “남쪽에 키 큰 나무 있지만, 그 아래서 설 수가 없네. 한수 가에 놀러 나온 여인 있으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네.”<sup>39)</sup>를 설명한 <<韓詩外傳>> 권1의 일화를 전고로 인용하였다. 孔子가 南遊하여 楚나라에 가다가 물가에서 빨래하는 처녀를 만나 제자 子貢을 시켜 말을 걸게 하였다. 처음에는 술잔으로 물을 떠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거문고를 당겨(抽琴) 줄받침(軫)을 제거한 후 조율을 부탁하고, 마지막에는 葛布를 주면서 여인의 의사를 타진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의를 내세워 점잖게 거절을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 고사는 이 여인이 자공에게, 빨리 떠나지 않으면 “미치광이 같은 남편이 와서 자신을 지켜줄 것(竊有狂夫守之者矣).”이라고 ‘위협’하며 거절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sup>40)</sup> 이 이야기에서 여인이 자공의 접근을 물리친 방식은 <陌上桑>에서 여주인공 羅敷가 부하관원을 시켜 여인을 유혹한 태수에게 남편의 위세를 과장

39) <<詩經·周南·漢廣>>: “南有喬木, 不可休思. 漢有遊女, 不可求思.”

40) 賴炎元 註譯, <<韓詩外傳今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6), p.3.

하여 거절한 것과 흡사하다.

제 16구는 劉向의 《列仙傳·江妃二女》에 나오는 鄭交甫와 두 여신의 이야기를 전고로 취하였다. 江妃 두 여신이 강가를 유람하다가 鄭交甫를 만났다. 전고보는 이 미모의 여신들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들이 여신인지도 모르고, 여신의 하녀에게 그녀들이 차고 있는 佩玉을 달라고 하겠다고 한다. 하인은 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굳이 말에서 내려 두 여신을 찾아가 ‘말’을 걸고 무리하게 간청을 한 끝에 억지로 그녀들이 차고 있던 패옥을 얻었다. 그러나 수습 걸음 가다보니 품속이 비어 패옥이 없어지고 여자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sup>41)</sup> 이 두 전고는 모두 남성이 무리하게 여성에게 접근을 시도한 예이다.

이상의 주요 전고를 보면 이 시에서 다루는 내용은 청춘남녀의 아름다운 만남보다는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만남일 가능성이 더 크다. 더구나 포조 <採桑>의 원류인 <陌上桑> 古辭의 주제 및 秋胡 故事와 관련지어 보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실제로 유송 왕실에서 효무제와 전폐제는 각각 권력을 이용한 근친상간과 유부녀 납치를 자행하였으며, 본인들도 이것이 떳떳하지 못한 일임을 알았기에 그녀들의 성을 異姓으로 바꾸었고 발설하는 자를 죽인 것이다.

포조는 <瓜步山楬文>이라는 산문에서, 유송 사회의 시비를 논하기조차 어려운 혼란과 난맥상을 개탄한 바 있다.

黃河에 빠지고 바다를 건넌 고상함, 황금을 버리고 白璧을 밀친 奇行, 네 번 읊기고 여덟 번 부름 받은 책략, 세 번 쫓겨나고 다섯 번 축출된 하자, 친구를 팔고 명예를 판 천박함, 종기를 빨고 치질을 훑은 비속함 등을, 어찌 그 시비를 논할 수 있으리!<sup>42)</sup>

41) 劉向, 《列仙傳》(『文淵閣四庫全書』本;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영인), p.494: “江妃二女 …… 出遊於江漢之涓, 逢鄭交甫. 見而悅之, 不知其神人也. 謂其僕曰: ‘我欲下請其佩.’ 僕曰: ‘此間之人, 皆習於辭不得恐懼悔焉.’ 交甫不聽, 遂下與之言曰: ‘二女勞矣.’ 二女曰 …… 遂手解佩與交甫, 交甫悅受而懷之中當心, 趨去數十步, 視佩空懷無佩, 顧二女忽然不見.”

더구나 앞에서 《宋書·二凶傳論》의 기록을 인용한 것처럼, 유송의 제왕이나 부녀자들에게 淫行이 자행되었다면, 위진남북조를 대표하는 현실주의 시인인 포조가 이러한 현상을 노래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는 당시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문제는 <擬行路難>을 위시한 많은 악부시를 통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대부분 暗喻를 통하여 '譎諫'하거나 찬미를 포장한 풍자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의 시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더구나 효무제는 시기심 많은 황제라 신하의 문장이 자기보다 나은 것도 용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조는 그 뜻을 알아채고 짐짓 '鄙言累句'로 글을 지었다고 한 本傳의 기록<sup>43)</sup>에 의하면, 포조는 문장조차도 일부러 못 짓는 시능을 하였는데, 하물며 효무제의 부도덕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따뜻한 봄날 이성을 그리는 여성의 모습을 통하여 혼인자유를 추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후반부를 통하여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며 등용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포조라는 시인의 특성과 당시 사회상을 고려하면 유송 왕실의 '瀆亂'을 노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 V. 結 語

이상으로 포조의 <채상>시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시의 주제에 대한 언급은 현존 자료로는 淸 吳汝綸이 劉宋 왕실의 난잡한 남녀관계, 구체적으로는 孝武帝와 殷姬 또는 前廢帝와 新蔡公主의 근친상간을 풍자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 최초이다. 그 뒤 현대론 들어와 남녀의 연애 묘사

42) 錢仲聯, 앞의 책, 권2 <瓜步山楊文> p.131: “沈河浮海之高, 遺金推璧之奇, 四遷八聘之策, 三黜五逐之疵, 販交買名之薄, 吮癰舐痔之卑, 安足議其是非!”

43) 《宋書》 권51, <臨川烈武王道規傳·附鮑照傳> p.1480: “上好爲文章, 自謂物莫能及, 照悟其旨, 爲文多鄙言累句.”



를 통한 혼인 자유의 추구, 신세 한탄을 통한 등용의 바람, 봄날 발랄한 아가씨들의 뽕 따는 정경 묘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현대의 견해들이 모두 나름대로 해석의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미진한 감도 떨칠 수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오여륜이 말한 유송 왕실의 '瀆亂'을 《宋書》와 《南史》에 실린 사료를 통하여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이 시의 원류인 <陌上桑> 古辭와 '秋胡' 故事를 살핀 후, <채상>시의 내용을 표면상의 분석과 핵심 전고의 분석을 거친 후 오여륜 견해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殷姬는 南郡王 劉義宣의 딸로 효무제와 사촌남매인데, 효무제는 이복 동생인 남군왕을 주살하고 그 딸을 아내로 맞아 淑儀에 봉하면서 假姓으로 은씨를 주었다. 은희에 대한 총애는 황후를 능가하였다. 이 사실을 발설하는 자는 모두 주살하였을 정도로 효무제는 스스로 이 일이 정당성을 잃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新蔡公主는 文帝의 딸로 何邁의 아내인데 하매의 모친은 武帝의 딸인 豫章康長公主이다. 두 공주는 고모와 조카 사이이면서 姑婦간이 된 것이다. 신채공주는 또 전폐제의 고모이다. 전폐제는 대고모의 아들에게 시집간 고모를 아내로 빼앗았으니 효무제보다도 심한 면이 있다.

<맥상상>시는 태수가 신분을 이용하여 뽕따는 여인 羅敷를 유혹하였으나, 나부는 오히려 남편의 신분이 태수보다 높다는 과장을 통하여 유혹을 의연히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나부의 신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는 제후의 家臣의 아내라는 견해도 있다. '추호' 이야기는 신혼 5일만에 遊宦하였던 남자 추호가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뽕 따는 여인에게 황금으로 유혹을 하였다가 점잖게 거절당하였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 그 여인이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채상>시의 원류가 이미, 포조의 <채상>시에서 유송 황제의 난잡한 근친상간에 대한 풍자를 담았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포조의 <채상>은 표면적으로 보면, 늦봄 결혼 적령기 여성들의 '採桑', 화창한 봄날의 懷春과 閑愁, 남녀간의 화락을 염원하는 악부시 演唱者의

축원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화창한 봄날 소녀들이 뽕을 따며 즐겁게 노는 정경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제 3단의 내용으로 보면 신세를 한탄하며 등용되기를 바라는 시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시에 사용된 핵심 전고 네 가지, 즉 <桑中>시와 ‘桑中之喜’를 내포한 ‘郢中美’, ‘抽琴’과 ‘薦佩’ 등은 예의에 벗어나거나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 또는 남성의 억압적인 여성 유희를 함축하고 있다. <採桑>의 원류인 <陌上桑>, ‘秋胡’ 고사와 이 전고를 연결하면, 이것은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여성을 유희하거나 유린한 것을 풍자한 것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나아가 유송 왕실의 두 ‘瀆亂’ 사건과도 충분히 연결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여륜의 해석은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錢仲聯 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11.  
 林嵩山, 《鮑照樂府彙解》(臺北: 眞義出版社), 1985.1.  
 吳德風, <鮑照生平及其作品校正>, 臺灣政治大 中文研究所 碩士論文, 1966.  
 丁福保, 《全漢三國晉南北朝詩》(臺北: 藝文印書館), 1975.9.  
 黃進德 主編, 《中華大典(文學典)·魏晉南北朝文學分典(二)》(南京: 鳳凰出版社, 2007.4.  
 五臣 注, 《文選·上》(서울: 正文社), 1983.9.  
 郭茂倩, 《樂府詩集》(臺2版; 臺北: 中華書局), 1970.6.  
 徐陵, 《玉臺新詠》(3版; 臺北: 世界書局), 1971.5.  
 余冠英, 《漢魏六朝詩選》(제2판;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8.12.  
 盧昆·孫安邦 주편, 《漢魏晉南北朝隋詩鑑賞詞典》(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9.3.  
 鍾優民, 《社會詩人鮑照》(臺北: 文津出版社), 1994.2.

- Robert Shanmu Chen, *A Study of Bao Zhao and His Poetry: with a Complete English Translation of His Poems*, Ph.D. The University of Britksh Columbia(Canada), 1989.8.
- 洪興祖, 《楚辭補注》(4版; 臺北: 藝文印書館), 1974.10.
- 鄭樵, 《通志》(『文淵閣四庫全書』本; 臺北: 商務印書館 영인)
- 劉向, 《列仙傳》(『文淵閣四庫全書』本; 臺北: 商務印書館 영인)
- 賴炎元 註譯, 《韓詩外傳今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6.
- 班固, 《漢書》(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1975.11.
- 沈約, 《宋書》(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1976.5.
- 李延壽, 《南史》(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1977.8.
- 《詩經》(『十三經注疏』本; 臺北: 大化書局 영인)
- 洪興祖, 《楚辭補注》(4판; 臺北: 藝文印書館), 1974.10.
- 楊伯峻, 《春秋左傳注》(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83.9.
- 編輯部 편, 《樂府詩研究論文集》(北京: 作家出版社), 1957.4.
- 沈起煒, 《細說兩晉南北朝》(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4.2.

### <中文提要>

關於鮑照樂府<採桑>的主題, 歷來說法不一: 有人以為詩人對自由愛情的歌頌與追求, 有人以為自傷身世而希求提升, 有人以為是描繪在融融春日一群少女採桑之情景的. 從表面上看, 這些主張都有一定的道理, 但從鮑照其為人及作詩態度來看, 難免有不足的地方. 而清吳汝綸却說: “孝武宮闈瀆亂, 傾惑殷姬, 詩殆爲此而作. 不然, 則謂廢帝之以新蔡公主爲後宮也”, 與以上諸說不同. 筆者在基本同意這個主張的立場上, 首先了解孝武帝與前廢帝“瀆亂”的情況, 然後考察<陌上桑>古辭與“秋胡”故事, 最後分析鮑照<採桑>詩裏的主要典故.

孝武帝的寵妃殷姬實際上是他的堂妹, 便是其叔父南郡王義宣之女. 他誅

殺義宣以後，“密取之，寵冠後宮，假姓殷氏，左右宣泄者多死。”前廢帝的寵妃新蔡公主是文帝十女，爲何邁妻，邁的母親又爲文帝的妹妹。廢帝“納公主於後宮，僞言薨殞”，邁終然“見誅”。從此可知劉宋帝室的“瀆亂”，已到了目不忍睹的地步。〈陌上桑〉古辭與秋胡故事是〈採桑〉詩的源頭，其主題及內容是衆所周知的。以這兩則故事來諷諭宋室“瀆亂”也有可能。

鮑照在〈採桑〉詩裏運用不少典故，其中有關鍵性意義的有四則：“淇”與“上宮”是來自《詩經·鄘風·桑中》的，“郢中美”來自《左傳·成公二年》裏申公巫臣與夏姬之間的“桑中之喜”，“抽琴”來自《韓詩外傳》裏孔子南遊適楚時讓子貢和“佩瑱而浣”的“妻子”“與言”的故事，“薦佩”來自《列仙傳》裏鄭交甫與江妃二女之間的故事。前兩者含蓄“刺公室淫亂，男女相奔”或“私約”的意思，後兩者含蓄的有與〈陌上桑〉·“秋胡”故事類似之處。

綜觀以上，我們可知鮑照〈採桑〉詩有諷諭劉宋帝室“瀆亂”的可能，吳如綸的說法有其立論的根據。

주제어 : 鮑照, 採桑, 瀆亂, 陌上桑, 秋胡, 吳汝綸